



부활 제6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강론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요한 13,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7)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계셨고(요한 15,10)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그 일을 이루내셨습니다. 즉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즉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요한 3,16).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어지는 사랑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위령의 날이면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하여 묘지에서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보좌 신부 때의 일입니다만 위령미사 시작 전에 추워서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는데 사제석 뒤편을 돌아서 제가 앉아 있던 자리 옆으로 어떤 신자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분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고 뚜껑을 열어 뜨거운 물을 한 잔 따르더니 마시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잔을 받아들자 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신부님들 신자분들도 추울 텐데 혼자만 추위를 달랜다 싶어서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신자분이 사제로 살아가는 동안 내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추워 보였으면 다른 신부님들 다 제쳐두고 따뜻한 물 한 잔 부어 주고 자리로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분께 받은 것은 물 한 잔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닮은 분이셨습니다. 이 신자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7)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 은혜를 기억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간직해야겠습니다.



박태정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구암동본당 주임



제 1 독 서	사도 10,25-26,34-35,44-48
화 답 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 2 독 서	1요한 4,7-10
복 음	요한 15,9-17

주일 진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 가정 안에서, 본당 안에서, 직장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정의를 실천하고 싶은데, 모순투성이인 세상과 오해와 갈등으로 갈라진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다는 평화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무엇이며,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데 있어, 바로 이어지는 구절의 ‘너희 마음’이 그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란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기초가 아닐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부로 오는 힘든 사건들이나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곤 한다. 어떤 이는 쉽게 다시 내적인 평화를 찾아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묶여 평화를 잃은 채 지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더욱 자신과 다른 이의 평화를 어지럽히기 일쑤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내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침묵과 고독, 명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이 하느님 안에 깊이 머물며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을 때, 외부로부터 영향을 덜 받게 된다. 토마스 머튼 신부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기에 다른 사람과의 평화 안에 있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평화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함께 평화 안에 있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성당에 다닌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하느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내적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내면으로부터 다가오는 다양한 유혹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와 명상, 인내와 절제를 통해 정화와 비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굳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두 번째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평화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 ‘예’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것에 집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크신 뜻에 믿음으로 ‘예’라고 순종하며 우리 마음이 그분과 하나 되어 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 내적 자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깨어날 때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참된 평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내적 평화는 사랑으로 충만해져 믿음과 신뢰, 기다림과 인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에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의 내적인 평화 없이는 다른 사람과의 평화도, 세상의 평화도 없다.

모든 이들 안에 심어 놓으신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의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 평화 가운데 머물기를 초대하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이들 가운데, 모든 곳에 머무시며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마음이 산란하고 두려움에 싸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신다. 성령의 인도에 ‘예’라고 대답하며 욕심과 이기심으로 어지러워진 마음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봉헌하며,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마음의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하도록 하자.

우리가 진정 우리 내면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웃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거나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평화는 과연 어디에 있나요?



오랜 역사를 안고 새롭게 신심생활을 가꾸려는 함양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고색창연한 역사를 지닌 함양성당을 찾았다. 시골답지 않게 굵직한 건물들이 시선을 끈다. 앞쪽에 자리한 80주년 기념관이 있고, 몇 걸음 들어서면 100주년 기념성전이 위용을 자랑한다. 108년이 된 역사를 짐작할 수 있는 발자취이다. 성모 성월을 맞이하며 ‘원죄 없으신 잉태’를 본당주보로 하는 이 성당의 뜰은 성모님 미소로 온화하다.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노력

오랜 역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함양성당에는 있다. 2019년에 부임한 신호열 요셉 신부는 본당의 상황을 이것저것 지켜보면서 사목계획을 세워 알차게 실행하려고 구상했다. 노인대학을 여는 세밀한 계획이 코로나라는 벽에 막혀 무산되고, 성무일도로 시작하는 미사에 대한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다. 한풀 꺾이긴 했지만, 위기를 헤쳐 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 작은 성가대를 운영하는 일이었다. 평일미사에는 생활성가대가 노래하고, 주말 저녁미사에는 폐제성가대가 노래한다. 인원은 각 3,4명 정도이지만 활동하는 사람도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도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다. 주일미사에는 좀 더 많은 숫자의 성가대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노래한다.

방송미사도 지난해 코로나로 위기가 닥친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잘 진행하고 있다. 신통하게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방송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도 큰 축복이다. 그리고 성전 양쪽에 설치된 화면으로 매월 있었던 행사나 소식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작은 실행을 통해서라도 침체된 분위기를 줄이고 주님을 찬미하려는 노력이다.

사람과 건축물로 이어온 함양성당의 역사

정광수 도미니코 사목회장은 3대째 내려오는 구교우 집안에서 태어나 ‘도밍고’로 불리며 자라고, 살아온 오롯한 함양사람이다. 함양을 떠나 산 것은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군복무를 한 3년뿐이라는 그다. 1913년 대구대목구 관할 함양본당 설립에서 이어진 역사는 선대의 어른들에게 전해 들었고, 1959년 그가 태어나 지금까지 부산교구를 거쳐 마산교구에 이르는 본당의 역사 속에서 줄곧 함께했다.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복사를 썼고, 청년회 활동을 하며 주일학교 교사도 맡았다. 레지오 단장, 꾸리아 단장 등등 온갖 활동을 거쳐 사목회장을 맡고 있으니 함양성당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새겨져 있다. 100주년 기념성전을 지을 때도 건축위원으로 한몫을 톡톡히 했다.

황인균 요셉 신부와 신자들은 100주년 기념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땀을 쏟았다. 이것으로 함양성당 세 번째 건축의 역사가 되었다. 초대회장이 향교의 한옥 건물을 매입하여 1936년까지 사용한 후, 박재수 신부가 1937년에 시작하여 원교에 고딕식의 첫 성당 건물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김석좌 신부 부임 후 성당이 읍 중심에서 떨어져 있어 사목상의 불편함이 많으며, 최학조가 헌납한 교산리 현재 부지에 1970년 두 번째 성당을 건축했다. 그다음이 100주년을 일 년 앞둔 2012년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성전이다. 2011년 초 기공식을 하고 1년 반에 걸친 건축기간 동안 사제관과 수녀원은 아파트를 빌리고, 읍사무소 강당에서 주일미사를 드리면서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물결을 이루었다. 레지오 등 각종 모임은 각 가정에서 치러졌으며,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대동단결하는 기회가 되었다.



초기 고딕성당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들

코로나로 인한 이 느슨한 시간을 계기로 삼아 소홀했던 일을 돌아보게 되었다. 100주년을 치르면서 숨 가쁘게 달렸다가, 기진맥진 주저앉았던 시간을 수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성당 담을 허물면서 군에서 설치했던 조경수가 마뜩찮았는데, 늘 말만 하고 바라보았던 조경사업도 했다. 수종을 바꾸어 꾸미고 성당 분위기를 살렸다. 올 가을에 있을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에도 대비하여, 엑스포를 찾은 외국인들이 성당에 들릴 것을 감안하고 군에 요청하여 영문표기로 된 안내문을 입구에 세웠다.



공덕비

한편, 창고에 오래 방치되었던 최학조 초대회장 공적비와 첫 번째 성당을 지은 박재수 신부 공적비를 찾아내 깨끗하게 손질하고 성당입구에 세워 신자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했다. 최학조 안드레아는 공소회장 때부터 사가를 공소로 이용했고, 본당설립 후에도 초대회장을 맡아 원교에 있는 향교의 한옥건물을 매입하여 희사했으며, 여기서 함양성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진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하고 본당회장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제5대 박재수 요한 신부는 최학조가 죽기 직전 기부한 땅에 성당을 신축했다. 1940년에 완공한 성당은 105평의 고딕식 건축물이었는데, 이 인근에서는 보기 드문 아름다운 건축으로 유명했다.

함양성당은 운산공소, 문정공소, 공배공소를 관할하여 돌아가며 매월 1회 공소미사가 있다. 저녁미사 후에 공소 신자들과 조촐하게 음식도 나누며 화기에 애했던 공동체 시간이 코로나로 위축되긴 했지만, 공소 방문은 언제나 초기 교회를 느끼게 하는 친밀함이 있다.

시골인 듯 시골 같지 않은 시골본당이다. 유아세례도 심심찮게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유튜브를 찍어 올려 외국에서도 함양성당을 찾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 이 시기에도 대부분 가정이 고무금을 미루지 않는 것 또한 자랑인 함양성당은 어른들이 솔선수범하는 역사가 이어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오랜 역사는 값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새롭게 싹이 돋고 자라야 된다는 것을.



유아세례



일림

견진성사

일시: 5월 12일(수) 19:30

장소: 명서동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교구/본당

청년 교리연수 안내

청년 교리연수를 'ZOOM'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5월 22일(토) 13:00~18:00/

5월 23일(주일) 13:00~16:30

주제: 교회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대상: 청년, 선착순 15명 마감

준비물: 'ZOOM'이 가능한 장비(스마트폰, 태블릿 PC, PC 등), 필기구

참여방법: 'ZOOM' 프로그램 접속(연수 당일 'ZOOM' 주소 문자 안내)

참여조건: · 2일의 시간 동안 'ZOOM'에 접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데 방해받지 않는 공간
· 다른 일정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연수에 참여하려는 의지

신청: 5월 16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 취소 및 연수 책자 신청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에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를 취소합니다. 연수 책자만 신청받습니다.

내용: 여름 신앙학교 프로그램 교안 보급

주제: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대상: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책자비: 7천 원

신청: 5월 16일(주일)까지

※ 마감 이후 신청 불가

문의: 주일학교부 055·249·7051~2

위원회/기관/단체

체나콜로 5월 100단 목주기도 행사 변경 안내

일시: 5월 17일(월) 08:30~17:00

장소: 사파동성당

대상: 교구 신자 누구나

회비: 없음(김밥 제공)

문의: 회장 010·9399·5454

기타

마산가르멜산의 성모재속회원 모집

일시: 5월 17일(월) 10:00

(셋째 주일 지난 월요일)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피정의 집

대상: 만55세 이하 남녀 가톨릭 신자

문의: 010·8525·1150

✦ 신호열 요셉 신부 모친 선종

신호열 신부(함양본당 주임)의 모친 백귀순(벨라멧대)님께서 4월 28일(수) 선종하여 가족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월 15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S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가톨릭 트래블

올레길 425Km 24박 25일

제주교구 성지 7곳 순례 일정

289만원(2021년 9월 27일/ 매월 출발)

070-4086-0207 www.catravel.co.kr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 문의: 홍보국 055.249.7072



일 림



가난한 나라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 동참

2021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천주교회 모든 교구가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에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나눔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금을 모아 교황청에 보내어 백신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운동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시복 시성을 준비하는 운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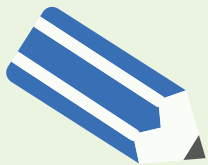
우리 교구에서도 가난한 나라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나누고자 하는 교황님의 뜻에 함께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 **2차 헌금일:** 5월 16일(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 본당에서는 백신을 보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백신 나눔 운동'의 의미를 신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위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이사악의 결혼과 야곱과 에사우의 탄생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돌아온 후 곧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창세 23,1). 아브라함은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을 매입하여 그곳에 사를 안장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사악, 레베카, 야곱, 레아가 이곳에 매장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들의 무덤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일곱 번째 순례 여정은 이곳 헤브론에서 출발하여 하란까지 가는 총 693Km에 해당되는 긴 여정입니다. 하루에 20Km씩 걷는다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여정이기는 하지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기분 좋은 여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길을 떠나게 될 이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온갖 선물을 가득 실은 낙타 열 마리입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이사악의 신봉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악의 혼인을 언급하는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에 해당됩니다. 연로한 아브라함은 이사악의 신부를 동족 가운데서 얻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종을 자신의 아우 나호르의 성읍으로 보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하란이라는 곳으로 아람 나하라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곳까지 이르는 여정은 비교적 순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저녁 무렵에 나호르의 성읍에 도착하여 성 밖 우물 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우물 곁에서 쉬는 이유는 그곳이야말로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은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물을 청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정성껏 물을 챙겨주는 처녀가 이사악의 신부로 정해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나호르의 손녀 레베카가 물을 길으러 왔고, 그 종과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처녀가 나호르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여정을 인도해 주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둘러 이사악과 레베카의 혼인을 주선했습니다. 당시에 레베카의 아버지 브투엘은 세상을 떠났기에 레베카의 보호자가 된 오빠 라반이 이 혼인을 허락하였고, 레베카는 다음 날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을 따라나섰습니다.

네겟 땅에 정착하고 있던 이사악은 종과 함께 오는 레베카를 보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사악은 레베카를 사랑하였고, 이로써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사악은 40세에 혼인을 하였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9세였습니다. 그가 36년을 더 살고 175세에 세상을 떠나자 아들 이사악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펠라 동굴에 안장하였습니다(25,9).

그런데 이사악에게는 20년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레베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악은 레베카를 위해 기도하였고, 마침내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레베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중독증이 매우 심하였던 레베카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느님께 문의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서는 그의 배 속에 두 민족이 들어 있기 때문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5,23).

하느님의 이 말씀은 하느님의 선택이 인간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형 대신에 동생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곧 인간적으로는 열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서는 오히려 그런 이들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시곤 합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선택이 인간의 장점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선택받은 자에게 어떤 우월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신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의탁만이 합당한 자세라 할 것입니다.

과연 레베카가 낳은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사우는 어떤 조건을 타고났을까요? 왜 하느님께서서는 에사우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일까요?